

남원시 “치매 환자·가족 고통 함께합니다”

치매안심센터 10월 개소...단기 쉽터·상담실 등 운영 찾아가는 상담·예방 교실...경제 부담 줄이고 전문 치료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시책을 펼치고 있는 남원시가 치매환자 치료와 보호에도 한 발 앞서고 있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치매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에 맞춰 취 보건소 부지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오는 10월 개소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도비 7억4000만원 등 총사업비 9억9500만원을 확보했다.

연면적 469㎡에 2층 규모로 건립될 치매안심센터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쉽터와 가족을 위한 가족카페를 설치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 상담등록관리팀, 조기검진팀, 쉽터팀, 가

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등 5개 팀으로 조직된다.

또 치매상담, 치매조기 검진, 치매진단, 치매환자와 가족지원을 위한 각종 인지 프로그램, 찾아가는 치매상담, 예방교실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 관련 서비스 안내와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치매통합서비스도 제공한다.

남원시보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간호사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치매 전문인력 6명을 배치해 시설이 완공 될때까지 치매상담과 조기검진 및 등록, 사례관리, 인지재활 프로그램운영 등의 기본업무를 수행한다.



남원 치매안심센터 조감도

이환주 남원 시장은 “치매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가 정식 개소하면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사람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나주시, 나주역 일원 에너지파크 조성

혁신창업타운·스포츠 파크 등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나서

나주시 KTX정차역인 나주역 일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나주시는 2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나주역 일원 에너지파크 조성을 골자로 한 ‘나주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부터 해마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 3~4곳을 선정해 전략사업 발굴과 집중 지원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16년부터 원도시와 혁신도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나주역 일원을 낙점하고, 지난 16년과 17년 투자선도지구 공모에 도전장을 내밀었으나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올해 들어 혁신도시와 원도심간의 상생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인 에너지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안을 보완해 3번째 도전 끝에 선정됐다.

“나주 빛가람에너지 클러스터”는 나주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에너지 혁신창업타운, 에너지 체험·스포츠 파크, 에너지 자립도시 등 에너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기능의 협력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 창업공간, 기업홍보관, 체험관 등과 정주 여건향상을 위한 문화·상업시설 등을 통해 나주 혁신도시와 원도시를 공간·기능적으로 긴밀히 연계해 지역 상생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시는 나주역 진입로에 위치한 석산(암벽)을 발파해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역전 앞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252면을 추가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역 일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규제 특례와 조세·부담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호남 서남부권 지자체의 광역교통 허브공간 마련과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의 미래성장동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정읍 현 시점 사진으로 저장

지형·지물 경관 기록 보전

정읍시는 지역 역사와 문화, 주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지형과 지물의 경관 기록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형·지물 기록 사업은 현 시점의 정읍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게 된다.

시는 정읍9경과 시가지, 역사문화, 농촌·자연·하천·도시기반 등 11개 분야 100개소를 기록과 대상으로 선정했다.

주요 대상은 옥정호구절초지방정원과 중앙로 경관거리, 정읍천, 통사마을 전통담길, 정읍역, 첨단과학산업단지, 백제가 요정읍사관광지조성사업지구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100곳을 촬영하고 11월 말까지는 각종 지도와 경관 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경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도시 발전사 자료 등 각종 정책 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과 동학농민혁명’ 특별전

남원시 향토박물관이 오는 10일까지 ‘남원과 동학농민혁명’ 특별전을 연다. 전시회에서는 남원에서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 50여점이 선보인다. 남원은 전라좌도의 농민군을 이끌었던 김개남의 주도지였던 교룡산성과 남원 동학군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방어진 전투지 등의 동학 유적지가 산재한 곳이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향토박물관이 오는 10일까지 ‘남원과 동학농민혁명’ 특별전을 연다. 전시회에서는 남원에서 전개됐던 동학농민혁명을 보여주는 유물과 자료 50여점이 선보인다. 남원은 전라좌도의 농민군을 이끌었던 김개남의 주도지였던 교룡산성과 남원 동학군의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방어진 전투지 등의 동학 유적지가 산재한 곳이다.

남원시 제공

익산시, 조명 소등 등 자발적 절전 당부

노타이 등 간소한 복장 출근

익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전력 수급위기가 높아짐에 따라 시청사 에너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청사 실내온도를 26~28도 이상으로 관리하고 조명 소등, 노타이를 비롯한 간소한 복장을 유지한다.

비상조치단계(예비력 300kW 미만)

때는 냉방기 중지, 사무실 조명 50% 이상 소등 등을 취한다.

경제단계(예비력 200kW 미만)에는 필수기기를 제외한 모든 사무기기의 전원을 차단한다.

익산시는 소속기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김우진 익산시 회계과장은 “자발적인 절전과 합리적인 전기기기 이용으로 전기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현대중공업 공공입찰 제한 기간 유예해달라”

군산상공회의소 촉구

군산상공회의소가 지난해 7월부터 멈춰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조기 재가동을 위해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선박 입찰 등에 현대중공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제한 기간을 유예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까지 5조5000억원을 들여 선박 40척을 건조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은 원전비리 사건으로 내년 말까지 선박 입찰 자격이 제한됐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이날 청와대, 정부, 정당 등에 보낸 건의문에서 “정부가 조선사 입찰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40척 규모의 공공선박을 발주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2017년 12월부터 2년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

는 입찰 참여가 제한돼 혜택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공공 발주를 통해 일감을 확보하고 불황의 늪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대중공업의 공공입찰 참가제한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상공회의소 측은 “산업과 고용위기에 처한 군산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속히 재가동되어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

어넣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선박 건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물량 부족과 조선업 침체 등을 이유로 작년 7월 1일부터 세계 최대의 130만급 도크와 1천650t급 굴리 및 크레인 등을 갖춘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50여 곳이 문을 닫고 근로자 5000명 가량이 실직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마저 지난 5월 말 철수하면서 군산경제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산=박규석 기자 nogusu@

곤충과 놀며 생명의 소중함 느껴요

고창군 곤충 체험학교 운영

고창군은 3일부터 10일까지 ‘생태곤충 체험학교’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생태곤충 체험학교는 ‘고창에 사는 곤충들을 만나자’를 주제로 진행된다.

체험학교는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펼쳐진다.

체험학교는 나비, 장수풍뎅이, 수벌 등 28종 곤충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이

자연의 변화와 생명체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곤충표본 액자 만들기, VR(가상 체험) 영상촬영 실습 카드보드 만들기 등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체험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생물권보전사업소(063-560-2687)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 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 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흡수 딱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제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정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오피스텔 "금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8층, 33평 - 금매 8,400만원
- 2층, 38평 - 매매 9,400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 주택은 수리해아 함 38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4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층주택 118㎡ 1억9500만 1층인데가능

투자·매도·교환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감정6억7천 교환가 4억6천
- 영암 삼호읍 준공업지 땅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무안 심향읍 왕산리 2차선접 4861㎡ 식당·창고등 적합 6억6천
- 나주시 석현동 2차선접 2538㎡ 가든·창고등 적합 2억7천
- 월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1억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민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동구 수기동 대지 152㎡ 3중 상가주택 292㎡ 매도 4억천

상가건물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3천
- 금남로5가 소방도 땅 213㎡ 건평 599㎡ 은행 3억 매도 6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0에 월 115 임대총 3억5천
-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땅 792㎡ 편선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가접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카센타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장부지 매매” (금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7억 ◆ (조정가)

인 하 건설 (주)

010-3605-0214
062) 655-4840